

新聞記事에 나타난 情報技術의 活用

정경수*·박영석**

A Content Analysis of Korean Newspaper Cover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Kyung Soo Chung and Young Seok Park

요 약

본 연구는 정보기술에 관련된 신문기사의 내용과 성격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양대 일간지를 88년 1월 부터 92년 12월 까지 5년동안 조사하였으며 총 1551건의 정보기술 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1988년 부터 1992년 사이에 양대 신문에 나타난 정보기술 관련기사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정보기술이 우리사회의 여러분야로 확산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기사의 내용은 원격통신, 신제품 개발, 컴퓨터관련 교육,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유통 등에 관련된 기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외에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가사자동화, 컴퓨터관련 범죄, 데이터베이스, 지역정보화, 멀티미디어 등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한편, 정보기술 관련기사의 성격은 기존의 신문기사에서 부정적인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긍정적인 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보기술이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므로 정보기술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의 기사에서는 컴퓨터 사용에 관련된 문제점,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에 의하면 기업의 업종에 따라 정보기술의 활용면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 기업의 내부 물적활동, 생산활동, 외부 물적활동에 관한 기사들이 많았으며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협상력을 증가시키는데 관련된 기사들이 많았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협상력을 증가시키는 문제와 함께 대체재의 개발에 관련된 기사도 많이 등장하였다.

*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대학원

1. 序 論

오늘날 정보기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分野에서 廣範圍하게 나타나고 있다. 個人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情報技術은 여러가지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生活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다.

기업에서의 정보기술은 기본적인 去來處理에서부터 經營者들의 意思決定支援에 이르기까지 모든 經營階層에 影響을 미치며, 原材料의 發注에서부터 製品의 受注에 이르는 전 공정의 자동화, 電子資料交換 및 전자결제, 화상회의, EFT/POS, 펌 बैं킹(firm banking) 등 기업활동의 전분야에서 活用되고 있다. 정보기술을 活用함으로써 얻는 효과도 조직의 기능적인 분야에서 效率性의 제고나 短期的인 비용절감을 이루고자 하는 보조적인 역할로부터 장기적인 기업의 成果를 증진시키기 위한 戰略的인 活用に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組織의 모든 계층이 情報技術을 이용하고 적용분야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정보기술의 管理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한편, 복잡적이고도 急變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정보마인드를 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發展하고 있는 정보기술의 새로운 趨勢를 이해하고 정보기술이 갖는 潛在力을 活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企業의 관리자나 경영자들은 새로운 기술의 戰略的인 意味를 파악하여 해당기업의 여건이나 특성에 맞도록 活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個人的인 경험을 통해 現實을 認識하기 보다는 매스 미디어

어에 의존하여 현실세계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言論에 나타난 정보기술에 관련된 記事를 통하여 우리는 언론이 구성하는 현실을 감지해볼 수 있으며 언론을 통한 情報技術의 活用문제를 분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우리나라 新聞紙面에 나타난 정보기술 관련기사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고, 정보기술 活용을 追跡함으로써, 신문에서는 어떠한 내용과 부문(研究機關, 政府, 企業, 其他)을 중심으로 정보기술 관련 기사를 報道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이 어떠한 전략적 무기로서 정보기술을 認識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쟁세력에 대항하여 정보기술을 活用하고 있는지를 把握하고, 끝으로 신문에서의 정보기술관련 보도에 대한 態度(긍정적, 부정적, 계도적, 중립적)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研究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本 研究에서는 정보기술의 活用に 대한 既存 文獻들을 참조하여 範疇(categories)를 설정하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양대 일간지의 記事 가운데에서 정보기술 活用기사를 중심으로 內容分析(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企業이 정보기술의 活用に 대해서 어떠한 競爭勢力을 中心으로 展開하고 있고, 정보기술의 活用に 있어 産業別, 時間別 差異와, 이것들에 대한 보도태도 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構成을 보면 1장 序論에 이어 2장에서는 關聯 文獻研究로서 言論과 企業의 關係, 정보기술의 活용과 기업활동, 그리고 情報技術에 있어서 산업별 시간별 差異를 연구한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2장의 文獻研究를 토대로 研究假說을 설정하고 연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4장에서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분석결과를 설명하였으며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要約하면서 본 연구의 限界点과 向後의 연구방향에 관하여 敘述하였다.

2. 理論的 背景 및 先行研究

본 장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이 많은 先行研究를 檢討하였다. 言論과 企業의 關係를 照明한 연구문헌과 정보기술의 活用과 企業활동에 관한 문헌, 그리고 정보기술의 活用に 있어 産業別 差異를 분석한 연구 및 時間的 變化에 의한 차이를 연구한 문헌 등을 살펴보았다.

2.1 言論과 企業

言論에서 企業의 뉴스가 중요하게 취급되고 일반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부터라고 한다[Evans 1984]. 그당시 人種과 性에 대한 차별대우, 환경오염, 권슈머리즘, 실업, 불황, 油價波動 등의 문제들이 企業과 경제관련 뉴스를 언론의 전면에 부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企業과 언론의 關係는 일반적으로 敵對的인 關係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Dominick 1981, Evans 1984, Peterson et al. 1982, Sethi 1977, Siddons 1985], Dominick[1981]은 이들의 關係를 “서로 주위를 맴도는 두마리의 개, 같은 병속에 들어 있는 두마리의 전갈, 카우보이와 인디언, 코브라와 뱀, 사자와 크리스찬”으로 표현하였다. 80년대 중반 모빌 석유회사가 잡지에 게재한 廣告에는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주요 신문사와 TV사의 기자와 편집자들은 經營者와 管理者들에 대하여 확실한 反感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Mobil 1983].

企業과 言論의 關係나 언론에서 보도한 企業 관련 뉴스를 분석한 연구논문은 여러편이 발표되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ethi[1977]는 그의 연구논문을 통해 보도매체와 企業간의 關係는 複雜하다고 밝히면서, 企業은 公공에 도달하기 위해 報道媒體가 필요하고, 보도매체는 보도매체의 일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보는 企業을 廣告主로서 본다고 하였다. 企業인들은 보도 뉴스에 대해 批判的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언론이 企業에 대해 偏見을 가지고 있다고 불평을 하는데 반해 언론매체는 모든 대상들을 똑같은 視覺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企業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외는 아니라고 응답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차이는 언론사의 기자와 企業 經營자들이 자신의 성과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Sethi는 여러 經營者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經營자들이 언론에 대해 가진 불평을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하였다.

- 1) 대부분 언론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文盲 (economic illiteracy)
- 2) 적절하지 못한 取材와 報道
- 3) 언론인들간에 企業에 대한 부정적 偏見이 存在

한편 Siddons[1985]는 企業과 저널리즘의 적대적인 關係를 다음과 같은 두가지 입장으로 說明하였다. 첫째 기자들은 記事作成에 관련된 조사나 공부를 소홀히 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며, 나쁜 뉴스만을 찾고, 수집된 정보

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企業에 대해 근본적인 편기를 갖고 있다. 두번째 기업의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들로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고, 중요한 것은 숨기고, 부정적 정보는 더욱 깊숙히 숨기고, 그들을 나쁘게 보게 만드는 主題를 迂廻하게 하거나 장벽을 쌓음으로써, 그리고 때로는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관련된 문제들을 더욱 混亂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차이는 양자가 책임져야할 範圍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즉 한편은 일반대중에 대해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責任과 다른 한편은 所有者와 株主에 대한 責任이 그것이다.

Evans[1984]는 언론인들과 경영자들의 태도를 實證 分析하여, 두 집단간의 관계를 改善하기 위한 몇가지 方案을 提示 하였다. 양자는 그 활동범위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언론은 뉴스의 소비자인 공공으로부터 그들 기사에 대한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도 언론과는 政治的, 經濟的 見解에 있어 큰 차이가 나므로, 기업가들은 미디어의 편기를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언론인은 경영인이 모호하지만 直觀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업의 공공적 이미지는 미디어에 의해 形成된다. 언론인들은 그들이 필요한 사실의 選擇과 解釋을 하고, 관심을 끄는 방법으로 뉴스를 消費하는 공공에게 알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中立的인 사실의 仲介者가 아니며, 이러한 선택, 해석, 제시과정에서 뉴스의 歪曲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娛樂은 뉴스 내용을 왜곡시키고, 사실에 대한 잘못된 印象을 줄 수 있고, 기자의 개인적인 정치적, 경제적 견해는 기사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

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자들 자신의 良心과 內部 省察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이럴 때만이 공공에 대해 더 나은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Dominick[1981]은 방송뉴스를 대상으로한 실증연구를 통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기사가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기사보다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ABC, CBS, NBC 세 방송국의 報道 內容에 대한 분석에서 세 방송국이 모두 類似하다고 하면서 시간적으로는 전체뉴스 시간의 10% 정도를 기업관련 뉴스에 할애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가 사용한 뉴스성향 (tone of coverage)에 대한 분석유목은 다음과 같다.

긍정적 기사 : 기업조직, 제품 혹은 서비스에 관해 긍정적인 면을 反映하고 있는 記事 또는 호의적인 측면에서 기업을 보도하고 있는 기사.

예를 들면 가격인하, 일자리의 제공, 새로운 서비스, 파업의 타결,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산업재해의 감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정적 기사 : 기업조직, 제품 또는 경영에 있어서 가치를 손상시키는 기사, 부정적 측면에서 기업을 조명한 기사. 예를 들면 가격인상, 제품의 하자발생, 산업공해, 사기, 가격담합, 착취적인 광고, 자금의 유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립적 기사 : 이상의 두가지 범주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는 뉴스내용에는 日常的 範圍에서 벗어난 事件에 관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른 뉴스에 비해 기업에 대한 뉴스가 훨씬 부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방송뉴스는 매출량이 많고 공공에 큰 영향을 가진 산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며, 集中化가 높고 可視的인 産業(예를 들면 자동차, 석유산업)이 언론으로부터 큰 注目을 받고, 보다 분산이 많이 되고 가시적이지 못한 산업(예를 들면 기계 제조, 서비스 산업, 소매업)은 언론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相關연구로 이창아[199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창아의 논문에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내용분석을 통해 신문전체 뉴스에서 부정적(bad) 뉴스가 긍정적(good) 뉴스나 중립적(neutral) 뉴스보다 많이 나타났음을 밝히고, 경제, 경영관련 기사에서도 부정적 기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의 사람들과 언론간에는 서로를 보는 視覺에 있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2.2 情報技術과 企業活動

정보기술을 企業에서 경쟁적,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각 산업에서 정보기술의 用途가 多樣한 것과 같이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무엇이 전략적인 정보기술의 활용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Ives & Learmonth[1984]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나 기술이 산업에서 企業의 製品이나 競爭하는 方式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같은 어플리케이션과 기술은 戰略의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Wiseman[1988]은 조직이 정보시스템을 경쟁자보다 많은 利益을 얻도록 전략적으로 活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략적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 조직의 경쟁전략을 公式化하거나 誘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 같은 시스템은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반영하고 성공에 대해 중요한 影響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Porter & Millar[1985]는 정보기술이 조직으로 하여금 낮은 비용으로 생산, 경쟁자와의 差別化, 특정시장부분을 識別하고, 集中하기 위해 사용되어 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McFarlan은 정보기술의 사용에 의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공급자와의 협상력을 증가시키며, 고객에 대한 새로운 依存을 創出하고, 신제품이나 대체품을 제공하며, 이해관계의 성질이나 경쟁에 대한 기초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Dickson & Nechis 1984].

본 연구의 내용분석에서는 포터의 경쟁세력 모형과 가치연쇄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분석요목을 정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간단히 說明하였다.

2.2.1 경쟁세력모형

포터(Porter)는 '산업 경쟁 분석 모델(industry and competitive analysis framework: ICA Framework)'을 통해 정보기술의 잠재적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다[Porter 1980]. 그의 연구는 기업내의 전략 수립자들과 일반 經營者들을 위하여 수행이 되었다. 그는 기존의 모형들은 주로 市場占有率이나 시장의 成長率의 예측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경쟁을 지나치게 협소하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특정한 産業의 競爭狀態는 산업내 기존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의 광범위한 要素들에 의해 決定된다고 하였다. Porter는 어떤 특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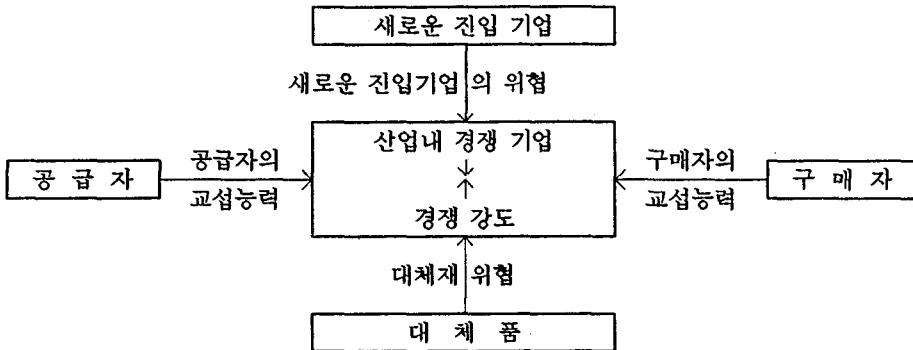


그림 1 : 산업내 경쟁세력의 구성

한 산업의 경쟁상태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기본적인 勢力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i) 공급자의 交渉能力, ii) 구매자의 교섭능력, iii) 잠재적 진입기업의 위협, iv) 대체재나 대체서비스의 위협, v) 전통적인 산업내 경쟁자들의 위치.

그림 1은 경쟁세력모형의 다섯가지 競爭勢力과 각 경쟁세력이 가지는 意味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產業에 따라 경쟁세력

중요성이 다르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1은 경쟁세력모형의 다섯가지 競爭勢力의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情報技術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들 각 경쟁주체와의 관계가 자기회사에 대한 위협이나 기회로 작용할 可能性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표 1 : 경쟁세력의 영향

경쟁세력	경쟁적 의미	정보기술의 활용방안
진입기업의 위협	규모의 확장 엄청난 자원 투자 가격 인하 및 경쟁 비용의 증대	진입장벽의 구축 규모의 경제 교체비용의 증가 제품 차별화 유통경로에의 진입저지
고객의 협상력	가격 인하 품질 향상 더 좋은 서비스 제공 경쟁 유도	고객 선택 전환 비용 차별화 진입장벽의 구축
공급자의 협상력	가격 인상 품질과 서비스를 낮춤	선택 수직적 통합의 위협
대체재와 대체서비스의 위협	대체재의 잠재 수익 분쇄 상한 가격 설정	제품의 성능/가격 향상 제품과 서비스의 재규정
기존의 산업내 경쟁자	경쟁 : 가격 제품 유통경로와 서비스	비용절감 시장 진입 저지 회사나 서비스의 차별화

자료원 : Cash & Konsynski[1985]

표 2 : 가치 사슬의 내용

활 동	정 의
내 부 물 질 유 통	생산을 위한 자재의 입고, 저장, 유통
생 산	투입물을 완제품으로 전환
외 부 물 질 유 통	제품의 보관 및 유통
판 매 및 마 케 팅	판매 촉진 및 판매 사원
판 매 후 서 비 스	제품 가치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서비스
기 업 의 하 부 구 조	전반적인 가치 체인을 지원(총무, 재무, 회계, 법적 서비스, 정부관련 업무, 품질 관리 등)
인 적 자 원 관 리	모집, 채용, 교육, 개발
기 술 관 리	제품 및 생산공정의 개선
물 자 조 달	직능, 자재 구입

자료원 : Cash, McFarlan & McKenney[1992]

2.2.2 가치사슬

전술한 Porter의 경쟁세력 모형은 企業外部의 경쟁상대를 糾明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기업내부의 활동을 분석하는 모델에는 다른 틀이 필요하다. 이러한 脈絡에서 Porter는 기업내부의 업무중 “어디에 정보시스템을 전략적 무기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質問으로 기업의 내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치연쇄모형을 소개하였다.

이 모형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連續的인 行爲로 보고 이 때 각각의 업무를 價値活動이라 부른다. 가치 활동은 主活動(primary activity)과 補助活動(support activity)로 구분되는데, 이와 같은 가치 활동은 모두 兩面的 要素, 즉 물리적인 요소와 정보처리 요소를 包含한다. 물리적 요소란 실질적인 물품의 생산, 가공 등 실제적인 활동을 意味하고, 정보처리란 가치활동의 수행이 가능

하도록 자료를 수집, 처리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각 가치활동에 있어서 물리적 처리와 정보의 처리 비중이 각각 다른데, 예를 들어 販賣活動의 경우는 정보처리 요소가 더 중요할 것이며 生産活動의 경우는 물리적 처리 요소가 더욱 중요하다. 가치사슬 모형은 어떻게 하면 附加價値活動을 좀더 잘할 수 있고, 가치를 추가하는 活動間의 連繫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焦點을 두고 있다. 또한 가치를 추가하는 활동을 분석할 때, 각각의 활동중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部門들을 조사하여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살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2.3 情報技術 活用に 있어서 産業에 따른 差異

정보기술의 전략적 역할과 정보기술의 重要性에 대한 관리자의 認識은 産業의 境界에 따

산업 선두주자와 제조 차이	고	통합능력의 증대	격차 해소 US Air
	저	경쟁우위의 유지 American Airlines Citibank	마케팅/적용 능력의 확대
		저	고

그림 2 : 전략적 투자 분야—산업선두주자와 비교할 때의 과제

라 다양하다고 한다[Jarvenppa & Ives 1990]. Jarvenppa & Ives는 649개의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에 실린 최고경영자가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분석을 통해 산업에 따라 정보기술의 중요도를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들은 금융, 출판, 석유, 소매업을 표본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금융산업의 경우, 산출물이 정보인 만큼 광범위한 활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석유산업의 경우 연간보고서 상에 정보기술의 활용에 관한 내용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음을 그들은 밝히고 있다. 또한 그들은 소매업의 경우 최근에 들어와서야 PO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며, 출판업의 경우는 생산과 배달에 있어 오래전부터 활용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Cash, McFarlan & McKenney[1992]는 다른 사업에서 보다 특정 산업에서 정보기술이 보다 전략적이라는 것을 전략 그리드 프레임워크를 통해 주장하였는데, 그림 2는 산업내의 각 기업들이 마케팅이나 운영, 혹은 양면 모두에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경쟁우위를 얻고자 할

때 중점적으로 투자해야하는 분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첫번째 그룹은 마케팅과 운영 양면에서 顯著한 變化를 이룩하여 이미 상대적 우위를 점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에서는 대개 조직구조와 경영자의 특성에 의해 정보기술의 활용이 促進되었다.

반면, 어떤 기업들은 산업의 선두주자에 의해 양면에서 壓倒되어 迅速한 隔差를 解消해야 하는 狀況에 처해있다.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기술은 다양한 산업 상황에서 매우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각기 다른 산업의 상황을 감안할 때,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自明하다.

Porter & Millar[1985]는 기업의 제품과 제조과정에서, 높은 情報集約的인 것으로 특징 지워진 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정보기술을 探索할 기회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Johnston & Carrico[1988]는 산업의 境界에 따라 정보기술의 사용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정보기술 관리자와 상위라인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支持

표 3 : 산업에 따른 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

연구자	분석 도구	내용
Jarvenppa & Ives[1990]	최고경영자가 주주에게 보내는 연간보고서	금융, 소매업, 출판, 석유 산업을 비교
Cash, McFarlan, & McKenney[1992]	전략그리드 프레임워크	산업선두주자와 제조와 마케팅에서 차이 비교
Porter & Millar[1985]	산업의 정보집약도	제품과 제조과정에서의 정보집약도로 파악
Johnston & Carrico[1988]	상위관리자와의 인터뷰	정보기술 사용에서 차이
Reich & Benbasat[1988]	산업의 정보집약도	금융기관에 편중된 연구

되고 있음을 밝혔다.

반면에 Reich와 Benbasat는 조직의 製品이 높거나 낮은 情報內容일때 보다 경쟁우위를 얻기 쉽다는 말에 대한 지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그 분석대상에 있어 金融機關에 대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산업을 조사함으로써 類似性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의 연구를 위의 표 3에서 요약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기술의 활용에는 산업에 따라 그 차이가 있으며, 정보기술의 전략적 실행에도 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情報技術 活用に 있어서 時間에 따른 差異

산업차원이나 기업차원에서 정보기술의 役割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중이 달라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의 內容을 통하여 산업에서 정보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Nolan 등은[Gibson & Nolan 1974, Nolan 1979] 성장단계모형을 통하여 조직에서 정보시스템이 몇개의 단계를 가지게 되며 각각의 段階를 거쳐서 다음단계로 성장해 나간다는 理論을 발표하였다. Nolan의 성장단계이론은 실증분석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는 면도 있지만 [King & Kraemer 1984], 정보시스템을 처음으로 導入하려는 기업이나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현재의 단계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有用한 모델이라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認定하고 있다.

Rockart[1988]는 정보기술은 일련의 年代를 통해 움직이며 “wired society”로 설명되는 연대에 최근에 진입했다고 전망했다. 초기의

會計時代(The Accounting Era)를 거쳐, 運營時代(The Operational Era), 情報時代(The Information Era)에 이은, wired society에서는 “시스템은 거의 항상 조직의 구조, 개인, 역할, 사업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때로는 急進的 變化를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변화과정은 企業의 관리를 책임진 경영자들에 의해 效果的으로 관리 되어진다고 하였다.

한편 Cash & Konsynski[1985]는 정보기술의 전략적 역할이 기업과 산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으며 企業經營에서 정보기술의 役割의 변화를 論證하는 실증적 자료는 Brancheau & Wetherbe[1987]에 의해 수행된 Delphi연구로, 3년전에 행해진 Dickson & Nechis[1984]의 연구와 비교를 통해 정보 시스템 관리의 중요한 문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리자들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Frenzel[1992]은 기업은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市場 環境을 변화시킬수 있으며, 경쟁자들이 參與하는 部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기술은 조직의 내적환경이나 조직구조를 변화시키며, 기업은 변화된 환경과 시스템 자체에 適應하도록 조직구조를 변화한다고 주장하면서, 競爭狀況의 變形(metamorphosis)과 기업의 對應은 어떠한 형태의 안정된 상태가 경쟁자들간에 수립되지 않는 한 持續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표 4에서 요약하였다.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이나 기업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하였다.

표 4 : 정보기술 활용에 있어서 시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연구

연구자	내용
Gibson & Nolan[1974]	조직에서 정보기술의 성숙을 단계모델을 통해 제시
Rockart[1988]	정보기술은 일련의 연대를 통해 발전
Cash et al.[1992]	정보기술의 전략적 역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
Dickson & Nechis [1984]	관리자들의 중요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
Brancheau & Wetherbe [1987]	관리자들의 우선순위가 바뀜
Niederman et al. [1991]	관리자들의 우선순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
Benjamin et al. [1985]	정보기술 관리자들과의 보고수준 차이
Frenzel [1992]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변화

3. 研究假說 및 研究方法

본 장에서는 先行研究를 土臺로 하여 연구가 설을 설정하고 연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방법에서는 資料의 蒐集 方法, 分析項目의 設定, 分析單位 및 集計體系의 設定, 그리고 分析類目の 一致度 檢證結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3.1 研究 假說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는 기사의 수가 증면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주식관련 기사, 독자란, 여성, 생활란 등과 같이 독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기사의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고 폭넓게 정보기술이 우리생활의 모든 분야에 점차 그 活用度가 增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기술의 활용에 대한 記事의 頻度도 증가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 原因의 하나가 신문의 증면에 따라 그 빈도가 증가하겠지만, 정보기술의 활용범위의 증가와 이에 대한 讀者들의 關心의 增加가 그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즉 언론이 독자들의 관심의 증가를 수용하는 商業的 活動의 側面과 우리사회의 변화를 反映하는 거울로서, 情報技術의 活用に 관한 記事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많이 보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1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기술 관련 기사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둘째, Sethi와 Dominick의 研究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에 관한 기사가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이창아[1991]는 우리나라 신문의 일반적인 기사내용이 긍정적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우세하며, 특히 경제, 경영관련 기사의 경우도 부정적인 內容이 많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기업에서의 정보기술 활용과 관련된 記事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기사의 비중과 긍정적 기사의 비중에 差異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情報技術 關聯 記事는 부정적 기사와 긍정적 기사의 비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Porter의 가치사슬 분석을 이용하여 기업내의 相互依存的 活動을 가치활동으로 파악하여 이것을 다시 主活動과 補助活動으로 분리하여 정보기술의 활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경쟁세력모형을 이용하면 기업의 外的 勢力에 對抗하기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을 어떠한 경쟁세력에 대항하고자 정보기술을 활용하는지 把握할 수 있다. 이 모형을 統合하여 기업의 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하는지 아니면 외적 경쟁환경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지는 산업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가설 3 : 기업에서의 情報技術의 活用은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서 산업에서의 정

보기술 활용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즉 선행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産業에 따라 정보기술의 活用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며, 또한 개별 구성원들이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설 4 : 산업에서의 정보기술의 활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研究方法

研究假說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대 일간지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래에서는 資料의 蒐集方法, 분석 항목의 설정, 분석체계의 설정 및 표본의 사례 수 결정 그리고 분석에 대한 일치도 검증 등에 관하여 論議하였다.

3.2.1 內容分析 資料의 蒐集方法

2대 日間紙인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기사들 중에서 정보기술 관련 기사를 1988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까지의 5년동안 1, 3, 5, 7, 9, 11월 전체 신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新聞의 選擇은 發行部數, 影響力, 指名度, 沿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자들이 任意로 選擇하였다. 또한 圖書館 資料를 이용한 관계로 누락된 일자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2.2 分析項目의 設定

내용연구 분석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主

題範疇(subject matter categories)별로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언론의 정보기술에 관련한 報道的 性格과, 보도의 대상이 연구기관, 정부 기관 혹은 기업인가 따라 報道對象을 유목으로 분류했다. 기업에서의 정보기술 활용을 다시 기업의 本源的 活動인 내적 활동, 즉 보조활동과 주활동, 그리고 외적 경쟁세력에 대항한 활동-진입장벽의 구축, 구매자의 교섭력 강화, 공급자의 교섭력 강화, 대체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경쟁조건의 변화-인가에 따른 기사의 내용으로 기업의 정보기술 활용을 範疇化했다.

또한 기업이 어떠한 산업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알기위해 産業에 따른 類目과, 기사가 나타나는 紙面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신문의 증면과정을 하나의 분석항목으로 設定하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문의 증면이 기사의 증가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독자의 관심의 증가가 언론에서 取扱하는 記事의 頻度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신문의 증면과 동시에 기사수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 [언론연구원 1988, 이경자 1988, 이동신 1990]를 참조하여 신문의 증면과정은 분석항목의 설정에서 제외하였다.

(1) 記事의 性格

기사의 성격은 題目의 內容이 內包하고 있는 의미나 제목 속의 私見이 사후에 미칠 영향이 긍정적(조화적)인가 아니면, 부정적(갈등적)인가를 중심으로 分類하였다.

㉠ 肯定的 內容 : 예로서 정보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기사의 내용이 '외출중 전화한통 집안일 척척', '휴대용 워드프로세서 불티', '생

활정보 안방제공' 과 같이 공공의 생활이나 업무에 있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게 유도하는 기사를 긍정적 기사로 분류하였다.

㉞ 不定的 內容 : '먼저 사생활보호 대책을', 'PC 통신 요금 10배 늘어난다', '컴퓨터교육 제자리 걸음' 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자아내는 기사를 부정적 기사로 분류하였다.

㉟ 啓導的 內容 : '컴퓨터 적응교육 시급', '젊은이여 여기에 도전을', '부모가 배워 실행할 활용에 모범을 보여야' 와 같이 계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을 계도적 기사로 분류하였다. 또한 기사 자체가 신문 독자로 하여금 정보기술과 관련된 내용의 이해와 지식을 확대시킬 목적의, 특정 대상이 없이 기술을 소개하는 기사,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 대한 예측 기사, 제품의 장·단점, 가격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사를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㊱ 中立的 內容 : 위의 어느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사의 제목은 중립적 내용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2) 記事 內容

기사의 대상을 연구기관, 정부기관, 개인·생활, 외국관련 기사, 기업 관련기사로 크게 5가지로 分類하였다. 기업관련 기사를 Porter의 가치사슬 분석과 경쟁세력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活動에 더 큰 比重을 두고 있고, 어떠한 경쟁세력에 대항하는 전략으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분석과 관련된 기사의 範疇와 操作的 定義는 다음과 같다.

㉠ 主活動(primary activity)

내부 물적 유통(생산을 위한 資材의 入庫, 貯藏, 流通), 생산(투입물을 완제품으로 전환), 외부 물적 유통(제품의 보관 및 유통), 판매 및 마케팅(판매 촉진 및 판매사원), 판매 후 서비스(제품의 가치의 향상과 유지를 위한 서비스) 와 같은 기업내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補助活動(support activity)

企業의 下部構造(전반적인 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총무, 기획, 재무, 회계, 법적 서비스, 정부관련 업무), 人的 資源 管理(모집, 채용, 교육, 개발), 技術管理(제품 및 생산공정의 개선), 物資調達(자재 구입)과 같은 기업내부에서의 주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進入障壁의 構築

규모의 경제, 제품 차별화, 상표 인지도, 산업내 전환비용, 소요 자본, 유통경로의 저지, 절대적 비용우위, 학습곡선, 투입물 저지, 정부 정책, 보복 등 신규로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참여자를 저지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특허의 획득, 산업의 선두자로서 경험곡선의 획득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顧客에 대한 協商力 強化

협상 능력, 구매자의 집중 對比 기업 집중, 구매자의 규모, 구매자의 교체비용 對比 기업의 교체비용, 구매자 정보, 수직적 통합 능력, 대체 상품, 價格 敏感度, 가격/총구입액, 제품의 차별화, 상표 인식, 품질과 성과에 대한 영향, 구매자의 이윤, 의사결정자의 유인 등 기업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있어 고객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특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 등을 포함한다.

㉔ 供給者에 대한 協商力 強化

투입물의 차별화, 공급자의 교체비용/기업연륜, 대체 투입물의 유무, 공급자의 독점 정보, 공급자의 규모, 산업 전체 구입액 대비 비용, 투입물이 비용 및 차별화에 미치는 영향, 산업 내 기업 통합의 위협 등 기업이 정보기술을 공급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㉕ 代替製 威脅의 弱화

대체제의 상대적 가격과 성능, 전환비용, 대체제에 대한 구매자의 성향, 신제품의 개발과 같은 대체제의 위협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업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수입제품이나 원재료에 대해 국산화의 실현으로 인해 외화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의 기사도 포함한다.

㉖ 産業內 競爭者에 대한 活用 및 市場 競爭條件의 變化

산업성장, 고정비/부가가치, 제품 차별화, 상표 인식, 전환비용, 독점정도 및 균형, 정보의 복잡성, 경쟁자의 다양성, 각 기업의 利害關係, 脫出障壁, 提携 등 기업이 경쟁하는 산업 내 경쟁자들에 대해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새로운 종류의 정보나 서비스의 상품화와 관련된 기사이거나, 시장의 경쟁상황을 설명하는 기사를 포함한다.

2.3 分析單位 및 集計體系의 設定

주어진 유목에 넣어서 集計를 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의 최소 단위를 分析單位라고 한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기사전체 내용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삼고, 기사 내용에 있어 여러 범주에 걸친 내용이 나타날 시에는 細部的으로 文章이나 文段別로 분석하여 최고 많이 나타나는 빈도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사의 성격 분석은 기사의 표제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상충된 性格의 題目이 동시에 나타날 때에는, 보다 큰 크기의 제목을 해당 성격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제목의 크기가 같을 시에는 빈도에 따라 해당 項目에 포함시켰다.

2.4 分析項目의 一致度 檢證

분석유목의 客觀的인 分類 有無는 일치계수 (coefficient of agreement)를 산출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80% 이상의 一致度가 필요하다[1989].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2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1개월간의 신문 기사를 가지고 일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모두 1학기 이상의 MIS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로 사전에 범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실시한 뒤, 一般的인 分類가 가능한 기사형태, 지면에 대한 분류는 제외하고, '기사의 성격', '기업에서의 정보기술 활용'이라는 두가지 유목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기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87%, 기업에서의 정보기술 활용에 대해서는 84%의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4. 資料分析

본 장에서는 정보기술에 관련된 기사에 대한 자료의 분석과 가설검증의 결과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4.1 記事數 分析

조사 기간 동안의 분석기사 건수는 총 1551건이었다. 이것들을 년도/신문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총 1551건의 기사중 동아일보의 記事數는 594건이고, 조선일보는 957건이었다. 두 종합일간지의 정보기술 관련기사에 있어서 조선일보가 동아일보보다 많은 기사를 取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마다 정보기술관련 기

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90년에는 89년에 비해 두배정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신문 지면의 증가율을 훨씬 上廻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언론과 독자들의 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가폭이 92년에 들어서면서 점차 緩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1년 471건, 92년 486건).

시간에 따른 정보기술 관련기사의 빈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기사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전반기와 후반기에서의 기사건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를 통해 알아보았다. 표 6을 살펴보면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정보기술 관련기사들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첫번째 가설은 채택이 된다.

표 5 : 년도/신문별 교차분석

(단위 : 기사건수, () : 열 %)

구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계 (%)
동아	54(9.1)	87(14.6)	139(23.4)	141(25.4)	164(27.4)	594(38.3)
조선	46(4.8)	69(7.2)	199(20.8)	310(33.4)	323(33.8)	957(61.7)
계 (%)	100(6.4)	156(10.1)	338(21.8)	471(30.4)	486(31.3)	1551(100.0)

표 6 : 전반기/후반기 기사비율에 대한 t-test

Variable	Number of Cases	Mean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전반기	15	26.2667	12.157	3.139			
후반기	15	77.1333	16.026	4.138			
(Difference) Mean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2-Tail Prob.	t Value	Degrees of Freedom	2-Tail Prob.	
-50.8667	20.938	5.406	-.087	.759	-9.41	14	.000

표 7은 지면/년도 교차분석을 실시한 표이다. 新聞의 前面을 장식하는 정치, 행정 관련 지면에서 정보기술 활용과 관련된 기사의 등장은 정당활동에 있어서 유권자관리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유권자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投票票의 集計를 전산화하여 빠른 집계와 보도를 수행하려는 政黨 및 言論의 活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방과 관련된 지면에서의 정보기술 활용과 관련된 기사의 등장은 行政電算網의 전국적 확대 실시와 地域情報化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면에서의 증가는 정보기술 활용의 폭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逆作用인 정보기술을 이용한 犯罪의 增加도 늘어

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가장 많은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제란과 과학란은 急速度로 일반 기업의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尖端技術의 開發 및 實用化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 표 8은 기사의 주제별로 전반기·후반기의 記事 頻度를 나타낸 것이다. Telecommunication, 신제품 개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유통, 컴퓨터교육과 관련된 기사의 비중이 다른 기사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 교육과 관련된 기사는 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과 관련된 기사와 企業, 研究機關에서 수행하는 일반인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컴퓨터 교육 실시 기사,

표 7 : 년도/지면 교차분석

(單位 : 記事件數)

구 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계 (%)
정 치, 행 정	1	3	2	2	7	15(1.0)
지 방				7	10	17(1.1)
외 신	2	5	4	5	8	24(1.5)
경 제	24	48	120	189	194	575(37.1)
사 회	3	7	12	8	38	68(4.4)
여성,가정外	1	11	36	18	29	95(6.1)
스포츠,연예	7	21	3	2	9	22(1.4)
학술,종교外	2	3	17	8	4	34(2.2)
문 화	1	1	2	5	11	20(1.3)
독 자 투 고		1	1	1	1	4(0.3)
의 료, 과 학	59	76	138	223	173	669(43.1)
기 타			3	3	2	8(0.5)
계 (%)	100(6.4)	156(10.1)	338(21.8)	471(30.2)	486(31.3)	1551(100.)

정보기술에 관한 마인드의 확산을 도모하는 소프트웨어 공모전과 같은 記事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Telecommunication 관련 기사는 한국PC통신의 하이텔(HITEL)이나 데이콤의 천리안 이용과 관련된 정보서비스 記事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기업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여 部署間이나 外部와의 情報 交流,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과 관련된 新製品 記事의 수와 H/W와 S/W의 개발, 유통과 관련된 기사의 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기업의 증가와 아울러 관련 기술의 研究開發을 통한 製品化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표 8 : 주제/시기별 교차분석

구 분	전반기	후반기	계 (%)
가사자동화(HA)	10	9	19(1.2)
사무자동화(OA)	7	33	40(2.6)
공장자동화(FA)	23	42	65(4.2)
교육, 의료, 행정, 교통	34	74	108(7.0)
컴퓨터 교육	58	83	141(9.1)
Telecommunication	51	157	208(13.4)
신제품 개발	29	144	173(11.2)
자금지원, 통일화 外	25	37	62(4.0)
연구개발, 학술	45	57	102(6.6)
서비스 개선	33	62	95(6.1)
시스템 개발, 구축	31	47	78(5.0)
H/W, S/W 개발, 유통	33	140	173(11.2)
범죄, 공해, 폐업	30	38	68(4.4)
신규산업, 제휴, 합작투자	10	43	53(3.4)
전시회, 매장개설	4	17	21(1.4)
인공지능	6	19	25(1.6)
안전, 보안	5	2	7(0.4)
출판, 언론	5	19	24(1.5)
데이터베이스	1	18	19(1.2)
지역정보화, 문화外	10	20	30(1.9)
Multi-media	1	5	6(0.4)
기타	10	24	34(2.2)
계 (%)	461(29.7)	1090(70.3)	1551(100.0)

4.2 記事 性格 分析

정보기술에 관련된 부정적 기사의 비중과 긍정적 기사간의 비중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월별 긍정적 기사와 부정적 기사의 비율을 이용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전체 1551개의 기사에 대한 분석을 보면 양기사의 비중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45$, $df=29$, $p<0.001$). 한편 기업에 관련된 602개의 기사에 대한 분석결과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6.11$, $df=29$, $p<0.001$).

따라서 정보기술 관련기사는 부정적 기사와 긍정적 기사의 비중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도 채택이 되었다. 이러한 두가지 성격의 기사중 어느 쪽의 기사의 비중이 높은지를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全體 總 1551件의 정보기술관련 기사의 성격을 신문별로 교차분석한 것이 표 9이다. 전체적으로 중립적 기사의 비중이 47%로 가장 높고, 긍정적 기사의 비중이 부정적 기사에 비해 약 3배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신문간의 比較에서는 동아일보가 조선일

보보다 全體 記事性格 構成에 있어서 긍정적 기사에 약간 높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부정적 기사는 조선일보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ethi, Dominick 등의 研究에서 보여준 결과에 의하면 기업에 관한 기사가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정보기술이라는 문제로 範圍를 좁히고, 한국적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부정적 기사의 비중보다 오히려 긍정적 기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企業의 情報技術과 관련된 기사에서는 중립적 기사가 56.5%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긍정적 기사에 비해 부정적 기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직 產業의 國際 競爭力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기업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을 북돋워 주고, 보다 先進의인 技術의 導入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또한 社會 全般에 걸쳐 情報技術의 擴散과 정보기술 마인드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意味에서 긍정적 기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9 : 기사성격/신문 교차분석

(단위 : 기사건수, () : 행 %)

구 분	동 아	조 선	계 (%)
긍 정 적 기사	226(38.1)	311(32.5)	537(34.6)
부 정 적 기사	96(16.2)	79(8.3)	175(11.3)
계 도 적 기사	58(9.8)	52(5.4)	110(7.1)
중 립 적 기사	214(35.9)	515(53.8)	729(47.0)
계 (%)	594(38.3)	957(61.7)	1551(100.0)

표 10 : 기사성격/대상 교차분석

(단위 : 기사건수, () : 행 %)

구 분	연구기관 외	기 업	계 (%)
긍 정 적 기 사	332(33.9)	215(35.7)	537(34.6)
부 정 적 기 사	131(13.8)	44(7.3)	175(11.3)
계 도 적 기 사	107(11.3)	3(0.5)	110(7.1)
중 립 적 기 사	389(41.0)	340(56.5)	729(47.0)
계 (%)	949(61.2)	602(38.3)	1551(100.0)

4.3 情報技術 活用に 있어서 産業에 따른 差異

分析對象 産業에서 어업, 광업, 전기·가스업 등 1차 산업을 대상으로 한 기사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Dominick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言論은 높은 賣出量을 가지고 公공에 큰 영향을 가진 産業에 높은 관심을 가지며, 集中化의 정도가 높고 可視的인 産業에 큰 주목을 하는 반면, 보다 分散되어 있고 가시적이지 못한 産業에는 큰 注目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1차 産業에 비해, 보다 더 情報集約的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H/W·S/W 産業 같은 분야에서의 情報技術을 活用한 기사의 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총 392건). 이것은 Porter와 Millar가 주장한 바와 같이 情報集約的인 産業이, 그렇지 않은 産業보다 情報技術을 전략적으로 活用할 기회가 더 클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산업에 따른 情報技術 活用の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産業구분을 크게 네가지로 나누었으며, 기업의 내적활동인 주활동과 보조활동을 内部活動으로 묶어서 범주화하였다. 표 11은 産業범주와 情報技術 活用과의 교차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카이스퀘어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설 3도 채택이 된다. 따라서 産業과 情報技術의 活用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産業의 境界에 따라 情報技術의 사용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産業別 情報技術 活用 構成比를 살펴보면, 제조업(내부활동 54.1%)을 제외한 서비스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H/W·S/W 産業은 顧客에 대한 協商力을 強化하는데 情報技術 活用の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각각 56.4%, 58.0%, 36.5%). 아울러 다른 産業에 비해 H/W·S/W 産業의 경우 代替製에 대한 構成比率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른 産業에 비해 H/W·S/W 産業의 경우 제품의 壽命週期가 짧고, 顧客의 選好度가 급격히 변화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1 : 산업에서의 정보기술 활용 교차분석

(단위 : 기사건수, () : 행 %)

구 분	제 조 업	서 비 스업	정보, 통신	H/W, S/W	계 (%)
내 부 활 동	59(54.1)	52(30.2)	29(20.3)	9(5.1)	149(24.8)
진 입 장 벽	9(8.3)	8(4.7)	6(4.2)	33(18.5)	56(9.3)
고 객 협 상 력	16(14.7)	97(56.4)	83(58.0)	65(36.5)	261(53.4)
공급자협상력	3(2.8)	2(1.2)	6(4.2)	5(2.8)	16(2.7)
대 체 재	9(8.3)	2(1.2)	5(3.5)	37(20.8)	53(8.8)
경쟁자, 시장	13(11.9)	11(6.4)	14(9.8)	29(16.3)	67(11.1)
계 (%)	109(18.1)	172(28.6)	143(23.8)	178(29.6)	602(100.)

Chi-Square=182.87 D.F.=15
 Significance=0.000 Min E. F.=2.897
 Cell with E.F.<5--4 of 24(16.7%)

4.4 情報技術 活用に 있어서 時間에 따른 差異

시간의 변화에 따른 情報技術 活用에서의 差異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기간을 前半期(88년 1월부터 90년 5월까지)와 後半期(90년 7월부터 92년 11월까지)로 크게 두기간으로 구분하였다.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기의 該當記事 件數는 165件인데 반해 표 13의 후반기

기사 건수는 437件으로 무려 3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각 표를 구성하는 cell의 시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윌콕슨 검정(Wilcoxon rank sum test)을 수행하였다. 해당 기사 건수의 심한 差異를 解決하기 위해 각 cell의 구성비를 이용하여, 전반기·후반기의 산업에 따른 情報記述 活용 構成에 있어 差異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윌콕슨 검증의 결과를 표 14에 요약하였다.

표 12 : 전반기 산업/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교차분석

(단위 : 기사건수, () : 전체구성 %)

구 분	제 조 업	서 비 스업	정보, 통신	H/W, S/W	계 (%)
내 부 활 동	17(10.0)	13(7.9)	4(2.4)	4(2.4)	38(23.0)
진 입 장 벽	3(1.8)	1(0.6)		8(4.8)	12(7.3)
고 객 협 상 력	8(4.8)	27(16.4)	31(18.8)	14(8.5)	80(48.5)
공급자협상력	1(0.6)	1(0.6)	4(2.4)	4(2.4)	10(6.1)
대 체 재	2(1.2)		1(0.6)	5(3.0)	8(4.8)
경쟁자, 시장	3(1.8)	5(3.0)	1(0.6)	8(4.8)	17(10.3)
계 (%)	34(20.6)	47(28.5)	41(24.8)	43(26.1)	165(100.)

표 13 : 후반기 산업/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교차분석

(단위 : 기사건수, () : 전체구성 %)

구 분	제 조 업	서 비 스 업	정 보, 통 신	H/W, S/W	계 (%)
내 부 활 동	42(9.6)	39(8.9)	25(5.7)	5(1.1)	111(25.4)
진 입 장 벽	6(1.4)	7(1.6)	6(1.4)	25(5.7)	44(10.1)
고 객 협 상 력	8(1.8)	70(16.0)	52(11.9)	51(11.7)	181(41.4)
공 급 자 협 상 력	2(0.5)	1(0.2)	2(0.5)	1(0.2)	6(1.4)
대 체 재	7(1.6)	2(0.5)	4(0.9)	32(7.3)	45(10.3)
경쟁자, 시장	10(2.3)	6(1.4)	13(3.0)	21(4.8)	50(11.4)
계 (%)	75(17.2)	125(28.6)	102(23.3)	135(30.9)	437(100.0)

표 14의 윌콕슨 檢證結果를 살펴보면 前半期와 後半期에 있어 산업과 정보기술 활용의 구성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따라서 가설 4는 기각이 된다. 이것은 先行研究에서 주장하는 산업에서의 정보기술의 활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과 어긋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比較的 짧은 期間동안의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産業의 特性은 짧은 기간동안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4 : 전반기/후반기에 대한 윌콕슨 분석

Mean Rank	Cases
11.50	11 - Ranks (후반기 < 전반기)
12.46	12 + Ranks (후반기 > 전반기)
	1 Ties (후반기 = 전반기)
	24 Total
Z =	-.3498 2-tailed p = .7265

5. 要約 및 結論

본 연구에서는 言論에 나타난 정보기술의 활용과, 정보기술 관련기사를 보도하는 추세, 報道的性格 등을 살펴보고 또한 산업에 따라서 정보기술의 활용에 차이가 있는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정보기술 활용에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양대 일간지를 선택하여 88년 1월부터 92년 12월까지 隔月の記事總 1551件的 기사를 分析하였다. 전체 기사중 동아일보는 594건, 조선일보는 957건이었으며 기사의 건수도 89년을 기점으로 두 배정도로 증가했으며, 92년에 들어서면서 기사의 증가폭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記事의 증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기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전체 기사건수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t 테스트를 통하여 分析하였다. 분석결과 양기간의 기사건수에 있어 차이가 있었으며, 아울러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보기술의 활용이 우리 社會의 많은 分野로 擴大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업관련 기사의 보도태도에 관한 일반적인 研究에서는 부정적 기사가 긍정적 기사보다 우세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는데 반하여, 정보기술 관련 記事의性格은 부정적인 기사(175건)에 비해 긍정적 기사(537건)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사의 비율로 t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과 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검증 모두 부정적 기사와 긍정적 기사의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부정적 기

사보다 긍정적 기사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산업에 따른 정보기술 활용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양 변인간의 카이스퀘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産業에 따른 情報技術의 活用에 있어 유의한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기업의 내부활동인 내부 물적활동, 생산, 외부 물적활동 등의 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서비스업의 경우 고객의 협상력을 증가시키는데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H/W, S/W 산업의 경우 고객에 대한 협상력의 증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달리 대체제의 개발에 높은 비중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정보기술 활용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5년간을 두 기간으로 나누어 前半期와 後半期 間의 差異를 比較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두 기간동안의 산업에 따른 정보기술 활용 테이블의 구성비를 Wilcoxon 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 時間의 변화에 따른 정보기술의 활용면에서는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택하여 분석을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의 문제점과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두 일간지의 신문기사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情報技術과 關聯된 環境의 一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문이외에도, 잡지, 학술지, 기술전문지, 단행본 등의 여러 활자매체 뿐아니라, 라디오, TV, 영화 등의 전파매체, 그리고 대면적 의사

소통 등 수많은 정보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른 매체와의 비교연구와 더불어 좀더 포괄적인 매체의 선정이 필요하다.

둘째, 시간에 따른 산업에서의 정보기술 활용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기간은 산업의 성격이 변화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長期間의 縱斷的 研究가 必要하다고 판단 된다.

셋째, 分析道具상에 問題가 있을 수 있다. 유목변수를 분석하는데 있어, 연구자의 지식부족으로 인해 보다 좀더 효과적인 도구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으며, 보다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다른 분석도구와 접목시킨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企業의 規模에 따른 分類를 遂行하지 않았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보기술의 활용에 있어 차이가 있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많은 研究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김 규,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방법」, 도서출판 나남, 1989.
 언론연구원 조사분석국, “증면이후의 지면변화”, 「신문과 방송」, 1988년 5월.
 이경자, “16면 체제 증면 이후의 신문”, 「신문연구」 제45권, 1988년 여름, pp. 241-254.
 이동신, “증면경쟁과 신문의 질적향상”, 「신문연구」 제50권, 1990년 겨울, pp. 227-

238.

이충아, 「한국신문에 나타난 BAD뉴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Brancheau, James C. and James C. Wetherbe, “Key Issues in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MIS Quarterly*, March 1987, pp. 23-45.
 Cash, James I. and B. R. Konsynski, “IS Redraws Competitive Boundaries”,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1985.
 Cash, James I., F. Warren McFarlan, and L. James McKenney, *Corporate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The Issues Facing Senior Executives*, 3rd ed. Boston: Richard D. Irwin, Inc., 1992.
 Dickson, Gary W. and Mal Nechis, “Key Information Systems Issues for the 1980s”, *MIS Quarterly*, Sep. 1984, pp. 135-159.
 Dominick, Joseph R., “Business Coverage in Network Newscasts”, *Journalism Quarterly*, Summer 1981, pp. 179-191.
 Evans, Fred J., “Business and the Press: Conflicts Over Roles, Fairness”, *Public Relation Review*, Fall 1984, pp. 33-41.
 Frenzel, C.W., *Manag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Boyd & Fraser Publishing Co. Boston, MA, 1992.
 Gibson, C.F. and R.L. Nolan, “Managing the Four Stages of EDP Growth”, *Harvard Business Review*, Jan.-Feb. 1974, pp.

- 76-88.
- Ives, Blake and G.P. Learmonth, "The Information System As A Competitive Weapon",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27, No. 12, Dec. 1984, pp. 1193-1201.
- Jarvenppa, Sirkka L. and Blake Ives, "IT and Corporate Strategy : A View from the Top",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1, No. 4, 1990, pp. 351-376.
- Johnston, H. R. and S.R. Carrico, "Developing Capabilities to Use Information Strategically", *MIS Quarterly*, Vol. 12, No. 1, March 1988, pp. 37-50.
- King, John L. and Kenneth L. Kraemer, "Evolution and Organizational Information Systems: An Assessment of Nolan's Stage Model",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27, No. 5, May 1984, pp. 466-485.
- Mobil Corporation Advertisement, "The Myth of the Crusading Reporter", *Editor & Publisher*, December 17, 1983.
- Niederman, Fred, James C. Brancheau, and James C. Wetherbe,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Issues for the 1990s", *MIS Quarterly*, Dec. 1991, pp. 475-500.
- Nolan, R.L., "Managing the Crisis in Data Processing", *Harvard Business Review*, Mar.-Apr. 1979, pp. 115-126.
- Peterson, R.A, G. Kozmetsky, and I. Cunningham, "Perceptions of Media Bias Toward Business", *Journalism Quarterly*, 1982, pp. 461-464.
- Porter, Michael E., *Competitive Strategy : Techniques for Analyzing Industries and Competitors*, Free Press, New York, 1980.
- Porter, M. E. and V. E. Millar, "How Information Gives You Competitive Advantage",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1985, pp. 149-160.
- Rockart, John F., "The Line Takes the Leadership-IS Management in a Wired Society", *Sloan Management Review*, Summer 1988, pp. 3-10.
- Sethi, S. Prakash, "The Schism Between Business and American News Media", *Journalism Quarterly*, Summer 1977, pp. 240-247.
- Siddons, Patrick, "Business and Journalism Bedfellows or Mortal Enemies?", *Business Horizons*, Sep.-Oct. 1985, pp. 3-7.
- Wiseman, Charles,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Richard D. Irwin, Inc., 1988.